

배종훈의
명상카툰



삶의 정상

우리 삶, 산을 오르는 것. 사람마다 산의 높이도, 오르는 길도, 만나는 사람도 다르다. 어떤 이는 매우 험하고 높은 산을 변변한 장비 없이 오를 것이고, 누군가는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오르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깎아지른 절벽을 외줄 하나에 의지해 오르고, 어떤 이는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오기도 한다.

또는 서로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잠시 헤어져 다른 길을 걷다 다시 만나기도 한다. 어떤 이와는 함께 도와가며 오르고 때론 서로 앞서가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이토록 힘들게 오랜 시간 오른 산 정상은 어디일까?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 서글프지만 정상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종착은 죽음이다. 그러나 우린 죽기 위해 살지 않는다.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유의 순간에만 인식될 뿐이다.

내일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 주어진 현재에 충실하고 이 순간에 행복하기 위해….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긍정적 미래 생각하기

"이 사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이 사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한참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학생이 무슨 소리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상한 틀에 틀어박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학교라는 제도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나아가선 주택 구입이나 결혼 · 양육 · 노후 문제 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저희들한텐 선택권이라는 게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경쟁에만 내몰리게 만들어놓은 사회에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생각하면 벌써 한숨부터 나옵니다.

먼저 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도둑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해요.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시련과 위기도 견뎌내며, 아주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걸 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왜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학생은 그걸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에요.

알은 젊었을 때 유명한 화가이자 도예가였어요. 그에게는 아내와 두 명의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큰아들이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알 부부는 단순한 배탈로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큰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사실은 급성 맹장염을 앓았던 거죠. 그 충격 때문인지 얼마 뒤 그의 아내마저 여섯 살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두 가지 비극이 안겨다 준 심한 고통과 상처로, 알은 비참한 날을 보냈어요. 날마다 술에 의지해 생활했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에 이르렀어요. 가정과 집, 자신이 만든 미술작품 등 모든 걸 하나둘씩 잃어가던 알은 십여 년 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쳤어요.

알의 죽음을 전해들은 보비 기이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소비한 그에게 경멸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보비 기이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야말로 헛되게 낭비한 삶 아닌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보비 기이는 그 가혹한 평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혼자 남은 알의 아들 어니가 어느덧 어른이 된 거죠. 어니는 보비 기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선량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비 기이는 어니의 그런 애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늘 궁금했어요. 어느 날 보비 기이는 용기를 내 어니에게 물었어요.

"어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네. 내가 알기로 자네를 키운 사람은 자네 아버지 알 혼자네. 도대체 알코올 중독자인 자네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자네를 키웠기에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니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가기위해 집을 떠날 때인 열아홉 살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게 키스를 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난 널 사랑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도둑에게도 배울 점 있어
옛 것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가야할 방향' 세워져
자신의 꿈 성취하기 위해선
현재 자신에 최선 다해야

보비 기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물질적으론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알은 가슴 깊이 사랑을 간직한 아버지였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훌륭한 아들을 남겼던 거예요.

배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실천해 보이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서로 가르치는 사람이자 행동하는 존재거든요. 학교라는 제도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일깨워주는 장소이고요.

학생에게 필요한 건 창조적인 삶이에요. 녹음기처럼 단순히 반복되는 학교생활과 일상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창조적으로 개선해야할 일이 있어요.

창조적인 삶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학생 안에는 자기 자신도 놀라울 만큼 행복하고,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학생 고유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창조적인 삶이에요.

개미 쳇바퀴 돌 듯 돌아가는 현재 사회를 보면서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정해진 규정과 관습과 전통과 패턴에 따라 똑같이 반복되는 사회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라고 해서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하고 엉망진창인 현장 속에서 창조적인 행위가 가능해요. 스티브 잡스처럼 창조적인 삶을 산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죠. 창조적 삶은 오히려 헌것서 새것을 발견하고, 새것으로 새것을 만나는 삶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현재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가 새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낡은 사회방식과 갈등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저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것으로 새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받아들임과 믿음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별개의 존재, 제삼의 존재는 없어요. 미래에는 오직 불확실성만 존재하고, 따라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세상에는 우수한 말(馬), 좋은 말, 용렬한 말, 우둔한 말 등 네 종류의 말이 있다"며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생명의 무상한 생멸 현상을 보고 정신 차려 힘써 정진하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니 이들은 우수한 말과 같다. 둘째, 사람은 뜨고 지는 해와 달, 피고 지는 꽃을 보면서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채찍질해 태만하지 않으니 좋은 말과 같다. 셋째, 자신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겪는 죽음의 고통과 육신의 훼멸, 고달프고 초라한 인생과 육친 간의 이별의 고통을 보고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마치 용렬한 말과 같다. 넷째, 병마가 몸에 침습해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흩어졌을 때야 비로소 세상을 헛살았음을 통탄하니 이들은 우둔한 말과 같아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말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지요. 〈끝〉

